

# 『靈樞·賊風』에 對한 研究

金恭彬·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A Study on the Young chu(靈樞) · Jeok-Pung(賊風)

Young chu · Jeok-Pung(賊風), Because of explanation Jeok-Pung(賊風), this may be called Jeok-Pung(賊風).

Major theory of this part is that ghost give rise to disease is wrong, because there exists pathogenic factor in the outbreak of disease, that is recognized or not.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shaman treats disease by pray, it is not ghost's effect but one of psychotherapy. this thought is very reasonable at a point of modernness.

It can be divided two chapters by contents.

In the first chapter, it is described outbreak of disease is determined by interaction between inner and outer pathogenic factors.

In the second chapter, it is described though it looks like never having cause, careful investigation makes us understand the cause, so it is not ghost's action.

Key Words: Jeok-Pung(賊風), pathogenic factor(發病因子), psychotherapy(精神療法)

## I. 緒 論

『賊風』은 『靈樞』 第五十八에 編述되어 있는데 『甲乙』에는 卷六第五에, 『太素』에는 卷二十八諸風雜論에, 『類經』에는 卷十五 『疾病類賊風 鬼神』에 敘述되어 있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과 『靈樞經校釋』 모두에서 二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도 역시 그 內容을 檢討하여 二章으로 나누었다.

本篇은 篇中에 賊風에 대하여 論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 : 2000년 1월 18일    채택 : 2000년 2월 5일  
교신저자 : 이남구,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한  
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61-330-3525, ngoo@red.dongshinu.ac.kr)

『賊風』이라 名命한 것으로 보이는데, 本篇의 主要思想은 病變의 發生에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인식을 못하고 있던 나름의 病因이 존재하므로 鬼神이 疾病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당이 祝由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일종의 精神療法일 뿐이지 鬼神의 작용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第一章에서는 疾病의 發生이 內外因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내용을, 第二章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疾病도 잘 살펴보면 나름의 病인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鬼神의 所爲는 아니라는 것을 논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本篇은 醫學을 研究하는 가운데 일상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本文가운데는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도 많고 앞뒤의 文句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旨를 解得하기 어려우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들의 見解를 研究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精確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 나. 『類經』,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經校釋』을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一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00",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 2. 研究資料

〈表.一〉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 號	書 名	略 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叢書本	統本
5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明刻本	明本
7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8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日本舊抄本	日抄本
11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2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合編
13	『千金要方』	要方
14	『千金翼方』	翼方
15	『醫學綱目』	綱目
16	『靈樞識』	靈樞識

參考하여 그 內容에 따라 二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현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2	張介賓	明	類經	景岳
3	樓英	明	醫學綱目	樓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黃元御	1756年	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1808年	靈樞識	丹波
7	章楠	1825年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章
8	楊維傑	民國65年	黃帝內經譯解(靈樞)	譯解
9	澁江抽齋	1981年	靈樞講義	講義
10	廓羈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 III. 本 論

#### 第一章. 賊風 邪氣

##### 【原文】

黃帝曰 夫子言賊風<sup>(1)</sup>邪氣之傷人也 令人病焉<sup>(2)</sup>이라하니 今有其不離<sup>(2)</sup>屏蔽<sup>(1)(3)</sup>하고 不出室穴之中<sup>(2)</sup>이어늘 猝然病者非不離賊風邪氣<sup>(3)</sup>하니 其故는 何也오

岐伯이 曰 此는 皆嘗有所傷於濕氣하여 藏於血脈之中과 分肉之間하여 久留而不去거나 若有所墜墜하여 惡血이 在內而不去거나 猝然喜怒不節거나 飲食不適거나 寒溫不時하여 腠理閉而不通이라가 其開而遇風寒則血氣凝結<sup>(4)</sup>하고 與故邪로 相襲則 爲寒痺오 其有熱則汗出하고 汗出則受風하니 雖不遇賊風邪氣라도 必有因加而發焉이니이다

##### 【校勘】

1) 今有其不離屏蔽: 『甲乙』卷六第五에는 '今有不離屏蔽'로 되어 있다.

2) 不出室空之中: 原文은 '不出室空之中'으로 되어 있는데, 『甲乙』卷六第五와 『太素』卷二十八 그리고 合編에는 '不出室穴之中'으로 되어 있고, 『校釋』에 '統本 明本 日刻本에도 '不出室穴之中'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 의거하여 '不出室穴之中'으로 文章을 바꾸어 야 文義가 이어 지므로 이를 따른다.

3) 猝然病者非不離賊風邪氣: 『太素』袁昶刻本 卷二十八에는 '卒然病者非離賊風邪氣'로, 蕭延平本 卷二十八에는 '卒然病者非必離賊風邪氣'로 되어 있고, 『甲乙』卷六第五에는 "猝然病者非必離賊風邪氣"로 되어 있다.

4) 腠理閉而不通 其開而遇風寒則血氣凝結: 『甲乙』卷六第五에는 '腠理閉而不通 而適遇風寒 則血氣凝結'로, 『太素』卷二十八에는 '腠理閉而不通 其開而遇風寒時 血氣凝結'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賊風: 四時不正之風을 말함.
- (2) 離: 遭 或은 歷의 뜻임.
- (3) 屏蔽: 屏風의 뜻임.

##### 【較註】

〔1〕 夫子言賊風邪氣之傷人也 令人病焉 今有不離屏蔽 不出室穴之中 猝然病者非不離賊風邪氣 其故何  
馬·太素·景岳·校釋은 "이는 사람한테 그 전에 病에 걸린 적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새롭게 邪氣에 感觸되던

비록 꼭 賊風邪氣가甚하지 않더라도 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賊風은 바로 上古天真論 等篇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虛邪賊風이다. 무릇 賊風邪氣가 사람을 傷하게 하여 疾病에 이르게 되는 것은 참으로 日常의으로 일어나는 現狀이지만 이제 비바람이 들이지 않는 室內에 거처하는 데도 갑작스럽게 病이 되는 것은 본래 賊風邪氣에서 벗어난 상태인데도 이러한 병에 걸린 것이니, 황제께서 이 때문에 의심하신 것이다.”<sup>1)</sup>고 하였다.

〔2〕此皆嘗有所傷於濕氣 藏於血脈之中 分肉之間 久而不去 若有所墮墜 惡血在內而不去 猝然喜怒不節 飲食不適 寒溫不時 腠理閉而不通 其開而遇風寒則血氣凝結 與故邪相襲則爲寒痺 其有熱則汗出 汗出則受風 雖不遇賊風邪氣 必有因加而發焉

景岳太素張은 “嘗有所傷은 전부터 損傷받은 바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或 濕氣에 傷하여 이 濕氣가 分肉과 血脈의 사이에 머물러 잠복되어 있고, 或 높은 곳에서 떨어져 惡血이 머물러 제거되지 않고, 或 갑작스럽게 기쁨과 노여움을 절제치 못하게 되면 氣가 逆亂되어 지고, 或 飲食이 적절치 못하면 體內가 손상을 받게 되고, 或 추위와 더위가 제때 이르지 아니하여 腠理가 閉塞되면 衛氣가 不通하게 되니, 이 다섯 가지가 다 아래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故邪인 것이다. 글 중 開라고 한 것은 風寒에 感觸되고 露出된 것을 말한다. 故邪가 前부터 있는 데다가 風寒이 이를 이어 두 가지가 마주치면 血氣가 凝結되기 때문에 寒痺가 된다. 痺論에 말하길 ‘寒氣가 우세한 경우에는 痛痺가 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或 熱로 땀이 난 다음에 風을 받은 사람은 비록 賊風邪氣가 아닐지라도 또한 外感이 된다.

1) 馬: 此는 言人有故邪而又有新感이면 雖不必有賊風邪氣之甚이라도 而亦足以病也라 賊風은 卽上古天真論等篇之所謂虛邪賊風也라 夫以賊風邪氣傷人而至于病者는 固其常也어니와 今有處于屏蔽室穴中而卒然有病은 則本離于賊風邪氣而復有此病하니 帝之所以疑也라 ○太素: 賊風者는 風從衝上所勝處來니 賊風邪也라 離는 歷也라 賊邪之風夜來에 人皆臥 雖是晝日이나 不離屏蔽室內하고 不歷賊風邪氣 仍有病者하니 其故는 何也오하니라 ○景岳: 賊者는 傷害之名이라 凡四時不正之氣를 皆謂之賊風邪氣니 詳運氣類三十六이라 室穴者는 古人이 多穴居也라 非不離賊風邪氣는 言雖避風邪나 而亦有病者하니 何也오하니라 ○校釋:

必有因加而發이라는 것은 옛 병이 있는 데에 새로운 병이 더해진 것이니, 새로운 병과 옛 병이 합쳐져 邪氣를 형성하기 때문에 發病하게 된다.”<sup>2)</sup>고 하였다.

### 【考察】

1. 第一章의 不出室空之中이 原文에는 ‘不出室空之中’으로 되어 있는데, 『甲乙』卷第六五와 『太素』卷二十八 그리고 合編에는 ‘不出室穴之中’으로 되어 있고, 『校釋』에 “統本 明本 日刻本에도 ‘不出室穴之中’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 의거하여 ‘不出室穴之中’으로 文

2) 景岳: 嘗有所傷은 謂故有所傷也라 或傷於濕氣하여 留藏於分肉血脈之間하고 或有所墮墜하여 惡血이 留而不去하고 或猝然喜怒不節則氣有所逆하고 或飲食不適其宜則內有所傷하고 或寒溫不時하여 致腠理閉而衛氣不通하니 凡此五者가 皆如下文之所謂故邪也라 其開者는 謂冒露於風寒也라 故邪在前하고 風寒繼之하여 二者相值하면 則血氣凝結 故로 爲寒痺라 痺論에 曰寒氣勝者는 爲痛痺也라하니라 其或有因熱汗出而受風者는 雖非賊風邪氣나 亦爲外感이라 必有因加而發者는 謂因於故而加以新也니 新故合邪 故로 病發矣라 ○太素: 人雖不離屏室之中이나 傷於寒濕한데 又因墜有惡血하여 寒濕惡血等邪가 藏於血脈中커나 又因喜怒飲食寒溫失理하여 遂令腠理閉塞하면 壅而不通이라 若當腠理에 遇於風寒이면 則血凝結하여 與先寒濕故邪로 相因하여 遂爲寒痺라 雖在屏閉之中이라도 因熱汗出하여 腠理開受風이면 斯乃屏內之中加此諸病하니 不因賊風者라 馬: 雖非賊風邪氣之甚이나 然이나 亦必有故邪與新感也라 蓋傷有所傷於濕氣커나 或因墮墜而有惡血在其中커나 又猝然有喜怒飲食寒溫이 各失其常하여 所以腠理閉而不通也라 及其腠理開하여 而或遇風寒則血氣凝結하여 與濕氣惡血等之故邪로 相襲則爲寒痺니 卽痺論所謂寒氣勝者爲痛痺也라 斯時也에 正以有熱則汗出하고 汗出則受風하니 雖不遇賊風邪氣라도 必因有所加而病有此發也라 ○張: 夫心主脈하니 諸血者는 皆屬於心이라 嘗有所傷於濕氣하여 藏於血脈之中則傷心臟之神矣오 分肉者는 三焦通會元眞之處니 留於分肉之間則傷其氣矣라 若有所墮墜則有傷於筋骨하니 筋卽爲肝이요 骨卽爲腎이요 血卽爲心이니 惡血在內則傷心臟之神하고 有傷於筋則傷肝臟之魂하며 有傷於骨則傷腎臟之精이라 卒然喜怒不節則更傷所藏之神魂하고 飲食不適則更傷水穀之精液하고 寒溫不時則傷在外之形氣하고 形氣傷則腠理閉而不通이라 其開而遇風寒則血氣凝結하여 與故之濕邪로 相襲則風寒濕三氣가 雜合而爲痺矣라 其開而遇風者는 以有熱則汗出하니 蓋熱乃火之氣오 汗乃精血之液 因傷其精神하니 是以로 熱則氣弛汗出而開也라 汗出則受風하니 雖不遇賊風邪氣라도 必有因加於風寒而發焉이라

章을 바꾸어야 文義가 이어 지므로 『甲乙』, 『太素』, 合編, 『校釋』의 기재가 옳다.

2. 第一章의 猝然病者非不離賊風邪氣가 『太素』中 袁昶刻本 卷二十八에는 '猝然病者非離賊風邪氣'로, 蕭延平本 卷二十八에는 '猝然病者非必離賊風邪氣'로 되어있고, 『甲乙』卷六第五에는 "猝然病者非必離賊風邪氣"로 되어 있는데 앞 뒤 문맥으로 보아 『太素』蕭延平本과 『甲乙』의 기재가 정확하다.

3. 第一章은 疾病發生의 原因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疾病의 發生은 대개 賊風 등의 四時不正之氣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內在된 原因 즉 濕氣, 墜墮, 精神의 衝擊, 飲食不節 등에 의해서도 病이 생길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이는 病因에 대한 初步의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靈樞百病始生』에서 논하고 있는 病因分類의 내용과 더불어 病因病機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후 內經에 散見되고 있는 내용들을 陳言이 綜合하여 三因說로 발전시키므로서 韓醫學의 病因說이 定立되었다.

### 【直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夫子가 말씀하시기를 '賊風邪氣가 사람을 傷하게 함에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한다.' 하셨는데 지금 屏蔽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室穴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病者가 賊風邪氣를 벗어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이는 다 일찍이 濕氣에 傷한바 있어 濕氣가 血脈가운데와 分肉의 사이에 伏藏되어 오래 동안 머물러 제거되지 않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惡血이 속에 있어 제거되지 않거나, 갑자기 기쁨과 노여움을 질제하지 못하거나, 飲食을 적당히 섭취하지 않았거나, 추위와 더위가 제때 이르지 아니 하여 腠理가 閉塞되어 不通하다가 그 腠理가 열려 風寒을 마주치면 血氣가 凝結되고 옛 邪氣와 더불어 몸을 侵襲하면 寒痺가 되고, 거기에 熱이 있게 되면 땀이 나오고 땀이 나오면 바람을 받게 되니, 비록 賊風邪氣를 마주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병이 더해지면 發病하게 되는 것입니다."

## 第二章. 祝由

### 【原文】

黃帝曰 今<sup>1)</sup>夫子之所言者 皆病人之所自知也<sup>2)</sup> 어니와 其母所遇邪氣<sup>3)</sup> 하고 又母怵惕<sup>4)</sup>之所志<sup>4)</sup> 어늘 卒然而病者<sup>5)</sup> 는 其故何也<sup>5)</sup> 唯有因鬼神之事乎<sup>6)</sup> 아

岐伯이 曰 此亦有故邪留而未發<sup>6)</sup> 因而志有所惡<sup>7)</sup> 커나 及有所慕<sup>7)</sup> 하여 血氣內亂<sup>8)</sup> 하고 兩氣相搏<sup>8)</sup> 하니 其所從來者微<sup>9)</sup> 하여 視之不見<sup>9)</sup> 하고 聽而不聞<sup>9)</sup> 故로 似鬼神이니이다

黃帝曰 其祝而已者<sup>10)</sup> 는 其故何也<sup>10)</sup> 岐伯이 曰 先巫者<sup>11)</sup> 는 因知百病之勝<sup>11)</sup> 하되 先知其病之所從生者<sup>12)</sup> 니 可祝而已也<sup>13)</sup> 니이다

### 【較勘】

1) 今: 『甲乙』卷六第五에는 이 글자가 없다.

2) 皆病人之所自知也: 『甲乙』卷六第五에는 '皆病人所自知也'로 되어 있는데, 『語譯』과 『校釋』에 "周本과 日刻本에도 '之'라는 글자가 없다."고 하였다.

3) 其母所遇邪氣: 『甲乙』卷六第五에는 '其母遇邪風'으로 되어 있다.

4) 又母怵惕之所志: 『甲乙』卷六第五와 『太素』卷二十八에는 '又母怵惕之志'로 되어 있다.

5) 卒然而病者: 『甲乙』卷六第五에는 '卒然而病'으로 되어 있다.

6) 唯有因鬼神之事乎: 『太素』卷二十八에는 '唯有鬼神之事乎'로 되어 있다.

7) 及有所慕: 『太素』卷二十八에는 '及有所夢慕'로 되어 있다.

8) 兩氣相搏: 『甲乙』卷六第五와 『太素』卷二十八에는 '兩氣相搏'으로 되어 있다.

9) 聽而不聞: 『甲乙』卷六第五에는 '聽之不聞'으로 되어 있다.

10) 其祝而已者: 『甲乙』卷六第五에는 '其有祝由而已者'로 되어 있다.

11) 因知百病之勝: 『太素』卷二十八에는 '固知百病之

勝'로 되어 있다.

12) 先知其病之所從生者: 『甲乙』卷六第五에는 '先知百病之所從者'로 되어 있다.

13) 可祝而已也: 『甲乙』卷六第五에는 '可祝由而已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怵惕: 恐懼의 뜻임.

【較註】

[1] 今夫子之所言者 皆病人之所自知也 其母所遇邪氣 又母怵惕之所志 卒然而病者 其故何也 唯有因鬼神之事乎

太素·馬·景岳은 "內部的 邪氣로 인하여 생긴 병은 病人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寒濕의 邪氣를 만나지도 않고 또 喜怒나 怵惕 등으로 精神感情을 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연히 이것은 鬼神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sup>3)</sup>하였다.

[2] 此亦有故邪留而未發 因而志有所惡 及有所慕 血氣內亂 兩氣相搏 其所從來者微 視之不見 聽而不聞 故似鬼神

景岳·太素·馬는 "故邪는 먼저 病邪가 있었음을 이야기한 것이니, 濕 氣의 濕氣, 墮墜, 喜怒, 寒溫과 같은 것들이 머물러 걸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惡는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慕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邪氣가 걸으므로 發生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邪氣에 감촉되면 五志가 邪氣에 기대게 되고 血氣가 이로 因하여 안으로 어지러워지게 되어 邪氣와 正氣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 얽혀 邪惡하고 妄靈된 병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 오는 병은 그 機微가 매우 隱微하여 듣고 볼 수가 없다.

3) 太素: 因內邪得病은 病人并能自知어니와 仍有自知不遇寒濕之邪하고 又無喜怒怵惕之志어늘 有卒然爲病하니 當是鬼神爲之乎아하니라 ○馬: 此는 言有故邪而復動於情 故로 病似鬼神而非鬼神也라 帝疑上文所言爲病은 皆病人之所自知어니와 有等不遇邪氣하고 無所怵惕어늘 卽卒然爲病하니 此必有因於鬼神之事라 ○景岳: 鬼神之事는 蓋自古惑之矣라 故로 帝特以爲問어니 在欲發明其義以示人也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鬼神이라고 의심하니, 자취는 鬼神과 같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鬼神이 하는 일이 아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sup>4)</sup>고 하였고,

張은 "이는 病이 속에 있어 그 精氣神을 손상시킨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邪氣가 머물러 걸으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臟腑募原의 사이에 머물게 되면 氣를 손상시키게 된다. 水의 精은 志가 되고, 火의 精은 神이 되니, 마음에 싫어하는 바가 있게 되면 腎臟의 精을 傷하게 하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바가 있게 되면 心臟의 神을 傷하게 하여 血氣가 內亂되고 眞氣와 邪氣가 서로 얽히게 되는데 그 병이 오는 것은 점진적이다. 이는 病의 기운은 있으나 병의 형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어 마치 鬼神들린 것과 같다. 무릇 魂은 놀아 神이 되고 魄은 내려와 鬼가 되며, 神을 따라 往來하는 것을 魂이라 하고 精과 함께 나오는 것을 魄이라 하는데 精神的으로 內傷을 받게 되면 魂魄이 飛揚되어 흡사 鬼神들린 것과 같아진다."<sup>5)</sup>고 하였다.

[3] 先巫者 因知百病之勝 先知其病之所從生者 可祝而已也

景岳·太素·馬는 "祝는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等屬이니

4) 景岳: 故邪者는 言其先有病邪니 如上文之濕氣墮墜喜怒寒溫之類가 留而未發之謂也라 惡者는 惡其所憎也요 慕者는 慕其所好也라 故로 邪未發而新邪復觸之면 則 五志爲邪所憑하고 血氣因而內亂하여 邪正先後에 兩氣相搏而邪妄之病이 生矣라 但病所從來者其機甚微하여 有非聞見可及이라 故로 人以鬼神爲疑니 不知迹似鬼神이나 而實非鬼神之所爲也라 ○太素: 以下答意는 非無故邪在內하고 亦非無怵惕之志 故로 有所惡卽爲怒也요 夢有所樂卽爲喜也라 因此兩者相薄 故로 血氣亂而生病하니 所來微細하여 視聽難知하여 衆人謂如鬼神이나 非鬼神也라 ○馬: 人有濕氣惡血等之故邪하여 留而未發에 因病人素所不知하여 因而偶有所觸하여 或好或惡則血氣內亂하고 故邪與新志相搏하여 遂爾爲病하니 此其所從來者甚微하여 非見聞之所能及 故로 人不知其故而以鬼神爲疑나 乃似鬼神而非鬼神也라

5) 張: 此는 言病在內而傷其精氣神也라 故로 邪留而未發者가 留於臟腑募原之間則有傷於氣矣라 水之精爲志이요 火之精爲神이니 志有所惡則傷腎臟之精하고 心有所慕則傷心臟之神하여 血氣內亂하고 眞邪相搏하니 其所由來者漸矣라 此는 病氣而不病形 故로 視之不見하고 聽之不聞하여 若有似乎鬼神이라 夫魂遊爲神이요 魄降爲鬼며 隨神往來를 謂之魂이요 并精而出을 謂之魄이니 精神內傷則魂魄飛揚而有似乎鬼神也라

바로 祝由이다. 勝은 百病을 五行으로 구분하면 반드시 이기는 道理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그 병의 원인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만 體內的 精氣를 變易시켜 邪氣를 除去할 수 있다. 病가운데에는 藥石이 미치지 못하는 病도 있어 祝由이 아니면 안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오직 무당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祝由로 病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先巫들이 祝由를 활용하는 妙理는 바로 祝由에 있는 것이 아니고, 事物間的 生克의 이치를 살피 병을 이길 수 있게 도와줄 따름인 것이다.”<sup>6)</sup>고 하였고,

張은 “知百病之勝은 精氣神 三者가 온갖 病을 이길 수 있음을 아는 것이고, 知其病之所從生은 먼저 그 精氣神이 손상되고 病이 따라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可祝而已는 先巫들이 精氣를 變移시키고 神明에 通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고 하였다.

### 【考察】

1. 第二章의 ‘其祝而已者’와 ‘可祝而已也’가 『甲乙』卷六第五에는 ‘可祝由而已也’로 되어 있고, 『素問移精變氣論』에도 ‘祝由’라는 用語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祝’는 ‘祝由’의 省略이거나 誤植으로 보인다.

2. 祝由란 질병이 발생한 원인, 이유 등을 말로 표현하므로써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비적요소가 가미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오늘날의 안목으로 본

6) 景岳: 祝者는 巫祝之屬이니 卽祝由也라 勝者는 凡百病五行之道에 必有所以勝之者라 然이나 必先知其病所從生之由하고 而後以勝法勝之면 則可移精變氣하여 祛其邪矣라 病有藥石所不及하여 非此면 不可者하니 惟先巫知之라 故로 可祝而已也라 然則先巫用祝之妙는 正不在祝요 其機在勝之而已라 祝는 祝同이라 ○太素: 先巫知者는 巫先於人하고 因於鬼神하여 前知事也니 知於百病從勝剋生하고 有從內外邪生이라 生病者는 用針藥療之니 非鬼神能生病也요 鬼神但可先知而已라 由祝去其巫知之病이요 非祝巫之鬼也라 ○馬: 此는 承上文而言病之所以祝由而已者는 非病之由於鬼神也라 夫病既非鬼神이나 有等祝之而可已者는 正以先巫者가 因知百病之勝이니 如運氣及臟腑相剋之勝氣爲病이요 又知此人病所從生일새 今卽其病以祝之而病斯已矣라

7) 張: 知百病之勝者는 知其精氣神三者가 能勝其百病也요 知其病之所從生者는 知先傷其精氣神而病之所由生也요 可祝而已者는 先巫之能移精變氣而通神明也라

다면 일종의 心理療法으로 治療行爲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를 담당한 사람들이 대개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무당들이었으므로, 무당의 행위와 의학과의 관계를 냉철한 안목으로 분석한 내용이 第二章이다. 唐代에는 醫學을 專門科目別로 十三科로 나누었는데 이 十三科 가운데 祝由科가 자리잡고 있다. 이로 보면 祝由科는 단순히 巫堂의 行爲에 의하여 迷信을 신봉한 것이 아니고 전문의학의 한 범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韓醫學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心身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全一醫學이므로 心身의 均衡이 깨져서 생겨나는 微妙한 變化를 미리 파악하여 適切한 對應策을 提示해야지, 疾病의 發生을 鬼神의 行위로 여기고 미신적 행동을 일삼는다면가 아니면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本章의 精神이다.

### 【直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지금 夫子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病人들이 아는 내용이나 그 가운데 邪氣를 만난 바도 없고 또 怵惕으로 마음을 傷한 바도 없는데 갑자기 病이 생기는 것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직 鬼神이 하는 일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이는 故邪가 머물러 아직 걸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바가 있거나 사모하는 바가 있어 血氣가 內亂되고 兩氣가 서로 없으니, 그 病이 오는 것은 隱微하여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鬼神들린 병과 흡사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그 가운데 祝由만으로도 병이 낫는 사람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先巫들은 百病을 이길 수 있는 도리를 알되 먼저 病이 생기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祝由만 해도 病이 낫는 것입니다.”

## IV. 意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賊風邪氣가 사람을 傷하게 하면 사람들이 병들게 된다.’고 하

셨는데 지금 비바람을 피하고 또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아 賊風邪氣를 맞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病者가 병드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이는 다 일찍이 濕氣에 傷한바 있어 濕氣가 血脈가운데와 分肉의 사이에 伏藏되어 오래 동안 머물러 제거되지 않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惡血이 속에 머물러 제거되지 않거나, 갑자기 기쁨과 노여움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飲食을 적당히 섭취하지 않았거나, 추위와 더위가 제때 이르지 아니 하여 腠理가 閉塞되어 不通하다가 그 腠理가 열려 風寒을 마주치면 血氣가 凝結되고 옛 邪氣와 더불어 몸을 侵襲하면 寒痺가 되고, 거기에 熱이 있게 되면 땀이 나오고 땀이 나오면 바람을 받게 되니, 비록 賊風邪氣를 마주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병이 더해지면 發病하게 되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지금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病人들이 아는 내용이나 그 가운데 邪氣를 만난 바도 없고 또 怵惕으로 마음을 傷한 바도 없는데 갑자기 病이 생기는 것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직 鬼神이 들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이는 그 전부터 病을 일으킬만한 원인이 체내에 잠복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바가 있거나 사모하는 바가 있어 血氣가 內亂되고 두 氣運이 서로 얽혀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病이 오는 것은 隱微하여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鬼神들린 병과 흡사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그 가운데 祝由만으로도 병이 낫는 사람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先巫들은 百病을 이길 수 있는 도리를 알되 먼저 病이 생기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祝由만으로도 病이 낫는 것입니다.”

## V. 結 論

本篇을 내용에 따라 二章으로 나누고 字句解, 校勘, 較註를 통하여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第一章의 ‘不出室空之中’이 原文에는 ‘不出室空之中’으로 되어 있는데, ‘不出室穴之中’으로 文章을 바꾸어야 文義가 이어지므로 『甲乙』, 『太素』, 合編, 『校釋』의 기재가 옳다고 본다.

2. 第一章의 猝然病者非不離賊風邪氣가 『太素』中 袁昶刻本 卷二十八에는 ‘猝然病者非離賊風邪氣’로, 蕭延平本 卷二十八에는 ‘卒然病者非必離賊風邪氣’로 되어 있고, 『甲乙』卷六第五에는 “猝然病者非必離賊風邪氣”로 되어 있는데 앞 뒤 문맥으로 보아 『太素』蕭延平本과 『甲乙』의 기재가 정확하다.

3. 第一章은 疾病發生의 原因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데, 이는 病因에 대한 初步의인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靈樞百病始生』에도 病因을 分類하고 있는 내용이 보인다. 이들은 韓醫學의 病因病機學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후 陳言이 綜合하여 三因說로 발전시키므로서 韓醫學의 病因說이 定立되었다.

4. 第二章의 ‘其祝而已者’와 ‘可祝而已也’가 『甲乙』卷六第五에는 ‘可祝由而已也’로 되어 있고, 『素問移精變氣論』에도 ‘祝由’라는 用語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祝’는 ‘祝由’의 省略이거나 誤植으로 보인다.

5. 祝由란 질병이 발생한 原因, 理由 등을 말로 표현하므로서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행위로, 이를 오늘날의 안목으로 본다면 일종의 心理療法으로 治療行爲의 한 범주에 해당된다. 唐代에는 이를 專門科目으로 분류하여 醫學十三科가운데의 한 과목인 祝由科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韓醫學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心身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全一醫學이므로 心身의 均衡이 깨져서 생겨나는 微妙한 變化를 미리 파악하여 適切한 對應策을 提示해야지, 疾病의 發生을 鬼神의 行위로 여기고 미신적 행동을 일삼는다면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本章의 精神이다.

## 參考文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서울, 大星

- 文化社, 1991.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6.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一中社, 1988.
  7. 陣夢雷外 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8.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0. 廓霖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3.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4. 小曾戶洋: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オリエント出版社, 1988.
  15.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16.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
  17.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論章, 1990.
  19.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20. 李政育: 靈樞讀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21.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2. 池田政一: 靈樞概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2.